

나주문평면지사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복지기동대와 생활폐기물 수거로 환경 개선



2026년 문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 문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상수·이창규, 이하 문평면지사협)는 지난 7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깔끔 말끔 클린 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노인가구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사협 위원들과 복지기동대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생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집안 내 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령 및 치매로 인해 스스로 정리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제공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현장을 지켜본 어르신은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폐기물 정리 등 집 정리를 도와줘 기분이 좋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상수 문평면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평면지사협과 복지기동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조성했다.

/서성백 기자

담양군, 결핵 예방 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시사 표창

화순군, 고난도 사례 가구 주거환경 대규모 개선

담양군이 지역 주민의 결핵 예방 관리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결핵 예방 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담양군 보건소는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결핵 검진과 환자 발견에 나섰으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결핵 관리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군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신고와 치료 관리, 보건교육을 병행하며 결핵의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지원단 주관으로 지난 8일 동북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저장 강박 성향 등으로 인해 장기간 생활폐기물과 각종 잡동사니가 주거 공간 곳곳에 쌓여 있었다. 이에 희망복지지원단은 현장 확인과 사례 회의를 거쳐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환경개선 작업에는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환경미화원, 화순지역자활센터, 동북면 의용소방대, 복지기동대 등이 함께 참여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2026년 영광 쉼표 여행 사업 시작!



2026년 영광 쉼표 여행 사업 시작 포스터

/영광군 제공

여행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 쉼표 여행 누리집 (<https://www.yeonggwang.go.kr/trave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 쉼표 여행" 사업이 관광객에게는 합리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활력을 이끄는 상생형 관광정책"이라며 "많은 분들이 영광을 찾아 영광의 맛과 맛을 즐기고 많은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사업과 함께 사계절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경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특산물 인프라를 결합한 차별화된 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쪽오고 싶고, 와야만 하는 영광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영광군은 '영광 쉼표 여행'을 통해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촉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김진 기자

장성군 임산부 지원 '스마트하고 촘촘'

디지털 기기 활용해 산모 건강 관리...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지원

장성군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임산부 건강 종합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스마트 맘케어' 사업에 참여할 임산부를 모집한다.

'스마트 맘케어'는 △고위험 또는 산후우울 위험 △저소득·다문화·차상위 △초산모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출산부에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손목시계(스마트 워치)와 체중·혈압·혈당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건강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인력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기록-실천-피드백'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들은 임산부의 건강지표 변화와 수면, 식사, 활동 등 생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강 실천 목표를 제안한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연계 등도 권고



디지털 기기로 건강 관리 받는 산모와 의료진 사진

/장성군 제공

한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에는 큰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 김모씨(장성읍)는 "임신 기간에 건강 관리가 힘들었는데, 꼼꼼하게 상담받고 생활 습관을 조절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장성군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390-8363)로 상담받으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지난해 함께출산을 전국 2위에 오른 저력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으며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